

#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 전략

## I 추진배경

- 정부의 거래소 체제개편 방안(7/2 발표)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모험자본시장 육성,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

## II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

- 기업·투자자 등 수요자 중심의 시장 서비스 기업으로 변화 필요
- 시장간 차별적 경쟁을 통해 모험시장을 더욱 경쟁력 있게 육성
- 국내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M&A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

## III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체계

### 목표

경쟁과 혁신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아시아 금융허브

전략 방향	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	시장 간 경쟁체계 확립	글로벌 경쟁력 제고	경영시스템 혁신
전략 과제 (12개)	1 창업·벤처 성장 지원	4 코스피 : 글로벌 도약	7 해외시장 진출·공략	10 사업구조 다각화
	2 투자자 이익 보호	5 코스닥 : 미래성장엔진	8 글로벌 협력 확대	11 조직운영 효율화
	3 금융투자업계 상생 발전	6 파생시장 : 아시아선도시장	9 IT Solution Provider	12 성과주의 확산

## IV 전략방향별 세부 추진과제

### [ 전략방향 1 ] 수요자 중심의 시장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

#### ◆ 독점거래소 이미지를 탈피하여 시장이용자 중심의 최상의 서비스 제공

- ① **(창업·벤처기업 성장지원) 기업성장 주기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제공**
  - Start-up 지원 : “창업지원센터”를 새롭게 설립하여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기까지 토털 자금조달 컨설팅 제공
  - 창조경제 인큐베이터 : 창업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 성장성 중심으로 상장제도 재설계
  - M&A 시장 활성화 : 모험자본 회수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업 매도·매수자 발굴, M&A 정보제공 등 M&A 중개기능 수행
- ② **(투자자 편의 제고) 투자자 거래기회를 확대하고 시장접근성 제고**
  - 유동성 촉진장치 도입 : 증시 활성화를 위하여 마켓메이커제도를 도입하고, 마켓메이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
  - 시장 접근성 제고 : 국채·외환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투자자(은행 등)의 직접거래 참여 허용 등 시장참가자격 완화
  - 고가주 액면분할 촉진 :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초고가 우량주 액면분할 유도 및 추가적인 유인책 마련
- ③ **(금융투자업계 상생 발전) 기관투자자 유치 및 금융투자상품 확대**
  - 기관투자자 유치 : 기관투자자들의 거래제약요인을 해소하여 증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
  - 금융투자업계 협업 강화 : 정기·수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래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
  - 신상품 라인업 다양화 : ELS 장내화, 해외 ETF 직접상장 등 상장증권상품 확대를 추진하고, 채권 전문투자자시장 개설, 해상운임지수선물(부산금융중심지 연계추진) 등 다양한 신상품 상장

**◆ 시장間 고객마케팅·변화혁신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적 경쟁체계 강화**

**④ (코스피:글로벌 도약) Main Board 시장으로서 국제경쟁 우위확보**

- 글로벌 Top Class 기업 상장유치 : 아시아 우량기업의 동시상장 또는 DR 상장을 우선 추진하고, 점차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
  - 외국인 친화적 거래환경 조성 : 외국인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여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선호종목 적극 확대
  - 기업지배구조 혁신 :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기업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증시 저평가 해소 및 외국인 투자 유치
- ➔ 코스피시장은 “세계 우수시장과 경쟁하는 글로벌 증권시장”

**⑤ (코스닥:미래성장엔진) Start-up·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미래성장동력**

-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: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및 사적시장 (Private Market)과 연계하여 초기 모험자본 조달 적극 지원
  - 코넥스시장 Paradigm Shift : Start-up 기업에 대한 질적심사를 대폭 완화하고, 투자자 보호도 강구
  - 코스닥시장 차별성 강화 : 기술주시장으로서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성 중심으로 시장구조 전면 재설계
- ➔ “① 크라우드펀딩 → ② 코넥스 상장 → ③ 코스닥 상장”으로 이어지는 벤처 및 모험자본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

**⑥ (파생시장:아시아 선도시장) 아시아 허브 파생시장으로 집중 육성**

- 글로벌 One-stop 거래체계 구축 : 주요 해외시장과 교차상장,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세계 주요상품을 KRX에서 쉽게 거래
    - \* CME, Eurex, LSE, Euronext, JPX, 중국 등과 전략적 해외연계 확대
  - 전문투자자 중심시장으로 육성 : Co-Location, DMA 도입 등 전문·기관투자자 거래불편 해소 및 첨단 거래수요 유인
  - 아시아 최고 상품라인업 구축 : 다양하고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
    - \* 코스피/코스닥 관련 상품, 통화/금리/에너지/일반상품, 세계 주요상품 상장 등
- ➔ 가능한 모든 상품을 완비(現 20개 → 50개)하여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

◆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세계 환경 변화에 주도적 대응

- ⑦ (해외시장 진출 . 공략) 글로벌 M&A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모색
  - 해외시장 진출 : IPO 조달자금으로 글로벌 M&A(ATS, IDB 등), Joint Venture를 추진하고 지분교환을 통해 글로벌 거래소 네트워크에 참여
  - 글로벌 IR 강화 : 정부·거래소·IB 등과 공동으로 한국시장·투자상품기업정보 등에 대한 글로벌 합동 IR 정례적으로 개최
  - 해외 마케팅 거점 확보 : 싱가포르 등 금융중심지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IB 등과 해외사업 협업, 현지 투자자 유치 등 마케팅 추진
  - 중국사업 확대 :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·추진하고 위안화표시상품 등을 통해 중국인 투자수요 국내 유치
- ⑧ (글로벌 협력 확대) 해외 거래소 등과 국제협력 . 연계거래 추진
  -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: 아시아 주요국과 공동지수 및 상품 개발, 개장 시간대가 다른 해외시장에 코스피 200 등 파생상품 상장
    - \* 현재 CME·Eurex 파생연계거래를 LSE·Euronext 등으로 다변화
  - 데이터센터 연결 사업 : 아시아 거래소와 데이터센터 간 전용회선 연결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대거래소와 교차거래 등 협력 확대
    - \* 최근 日 JPX - 싱가포르 SGX 데이터센터 間 연결사업 시작('15.4月)
  - 해외 정보사업자 협력 확대 : S&P와 공동지수 개발, 시장정보 판매 사업 협업 등 글로벌 지수사업자와 네트워킹 확대
  - 제3국 적격CCP 인증 취득 : 유럽 ESMA·美 CFTC 등으로부터 제3국 적격 청산소(CCP) 인증을 취득하고 해외 연계청산 등 사업 추진
- ⑨ (IT Solution Provider) IT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대상지역 확대
  - 해외수출용 IT 솔루션 패키지 개발 : 해외고객 맞춤형 글로벌 호환 사양 탑재 등 IT 수출시스템 품질을 집중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
  - 수출대상지역 확대 : 기존 수출국(동남아·중양아 등)을 거점으로 하여 주변지역으로 IT 인프라 수출권역을 지속 확대해 금융한류 선도

◆ 사업 다각화 및 책임경영·성과주의 확산을 통한 경영시스템 효율화

⑩ (사업구조 다각화) 수익구조 다변화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업 육성

- 신규 수익사업 개발·추진 : 전통적인 매매서비스 이외에 청산결제, 장외상품 서비스, 기업·시장정보 제공, IT 솔루션 등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

\* 장외파생상품 거래플랫폼 구축 : (해외) 美 CME Swapstream  
기업정보 포털서비스 자회사 설립 : (해외) 美 NASDAQ-OMX Corporate Solutions  
IT 솔루션 기업 설립·인수 : (해외) 英 LSE Millennium IT

⑪ (조직운영 효율화) 자회사 경영자율성 강화 및 시너지 극대화

- 자율·책임경영 확립 : 지주회사(경영관리)와 자회사(사업기능)간 경영 전문화 및 회사별 독립채산제 등을 통한 책임경영 강화
- 중복기능 최소화 : 지주회사·자회사 조직체계 설계시 중복기능을 최소화하여 조직 비대화로 이어질 소지 원천 차단
- 조직체계 효율화 : 조직구조를 슬림화하고 최적의 관리범위 (Span of Control)로 조직운영 효율성 극대화

⑫ (성과주의 확산) 능력·성과 중심의 평가 및 차등보상 시스템 구현

- 성과평가체계 혁신 :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사업성과 중심의 성과평가체제로 전환
- 임금·보상체계 혁신 : 성과급 비중·차등폭 확대, 직무급 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성과·보상間 연계성 강화
- 인사관리체계 혁신 : 전문직군제 도입, 직원 경력개발경로 관리, 채용방식 다변화, 低성과자 관리 등 인사관리체계 전면 개편
- 외국인 전문가 영입 : 해외 거래소 M&A, 글로벌 마케팅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해 거래소의 해외진출 사업 전담 수행